



“모성에 강한 역할 끌렸죠”

김윤진, SBS '미스 마' 범인 쫓는 탐정 연기 애거서 크리스티 '미스 마플' 재해석해 눈길 4회 시청률 9% 대 ... “불수록 점차 빠져 들 것”

“미국에서 제안받은 작품 두 개 취소하고 선택할 만큼 본인이 매력적이었어요.” 배우 김윤진(45·사진)이 SBS TV 새 주말극 '미스 마'를 통해 딸의 살인범을 쫓는 엄마 역할로 19년 만에 국내 드라마에 돌아왔다.

'미스 마'는 추리소설 거목 애거서 크리스티 작품 중 여성 탐정 '미스 마플' 이야기를 드라마화했다. 김윤진이 맡은 미스 마가 딸을 죽였다는 누명을 쓰고 절망에 빠져 있다가 감옥을 탈출해 딸을 죽인 진범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뛰어난 추리력으로 주변인들의 사건까지 해결하는 이야기다.

김윤진은 최근 서울 양천구 목동 SBS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열린 '미스 마' 제작발표회에서 “원작도 재밌지만, 작가님이 재해석한 대본이 좋았다”고 말했다.

그는 “미스 마가 세상 밖으로 나와서 진범을 잡으려는 과정에서 무지개 마을 사람들을 만나고 천천히 변해가는 모습이 그려진다”며 “간박하고 가슴 아픈 사연이 있지만, 따뜻한 정서도 함께 담겨있다”고 덧붙였다.

김윤진은 원작과의 차이에 대해서는 “원작의 '미스 마플'은 흔들의자에서 뜨개질하면서 나뉠 나뉠 목소리와 뛰어난 통찰력을 통해 어려운 살인사건을 해결하는 반면 미스 마는 개인사가 있고 주변 사건과 주변 사건이 동시에 있다”며 “같은 점은 제가 뜨개질을 한다는 점이다. 이번에 배웠다”고 웃었다.

김윤진은 역할 선택 이유에 대해서는 “모성에 강한 캐릭터 등 모티브가 선 역할을 좋아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 여배우들은 모성이 부각된 캐릭터가 많고 다양한 캐릭터가 별로 없는 것 같다. 그런 캐릭터밖에 없다는 아쉬움도 있지만 제가 좋아하는 역할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미국에서는 나약한 여성 캐릭터 역할을 많이 했고 한국에서는 한때 '여전사' 이미지가 있었고 하면 다들 놀랐다”며 “(저에게) 배우로서 한 가지 이미지만 고정되지 않는 축복이 있는 것 같다”고 부연했다.

정웅인은 미스 마 사건을 담당한 형사 한태규를 연기한다. 한태규는 미스 마가 탈출하자 딸의 살해범을 찾기 위해 탈출한 것으로 확신하고 추격에 나선다.

정웅인은 “애거서 크리스티는 100년 전 인물인데 그의 작품이 계속 영화·드라마화하고 있다. 보이지 않는 마력이 있는 것 같다”며 “미스 마에서도 생각지도 못한 사람이 범인일 수 있다. 형사인 제가 범인일 수도 있다. 반전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김윤진과의 호흡에 대해 “김윤진 씨가 캐스팅됐다는 소식을 듣고 대본을 봤는데 몰입이 잘 됐다. 김윤진 씨의 도전이라는 그 자체의 힘이 있어서 저는 물어가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김윤진 씨를 연발 시상식 대상으로 올려야겠다. 내년,

내후년에도 윤진 씨가 계속 한국 드라마를 사랑했으면 좋겠다”고 웃었다.

정웅인은 “김윤진 씨는 본인의 에너지 관리를 정말 잘 한다”며 “많이 배우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윤진은 정웅인에 대해 “형사 역할 처음이라는 데 신기할 정도로 잘 어울린다”며 “제가 한국 드라마 현장에 적응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칭찬했다.

김윤진과 정웅진 외에도 고성희, 최광재, 성지루, 황석정, 신우 등이 출연한다.

김윤진은 “저희 드라마를 3주만 보면 100% 빠져들 것이라 생각한다”며 “시청률 17.5%를 넘기면 푸드트럭에서 100명에게 와플을 나눠 드릴 것”이라고 공약을 내걸었다.

한편 7일 시청률 조사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 5분부터 1회부터 4회 연속 방송한 '미스 마'는 5.8%-7.3%, 8.3%-9.1%의 시청률을 기록하며 4회에서 10% 돌파를 목전에 뒀다. 20-49세 타깃 시청률에서는 3.7%를 기록해 KBS 2TV '하나뿐인 내편'을 제외하고는 주말극에서 가장 높은 성적을 냈다.

전작인 “너로 말할 것 같으면”의 첫 회 시청률은 4.4%, 최종회는 12.7%였다.

'미스 마' 첫 회에서는 딸을 죽였다는 누명을 쓴 미스 마(김윤진 분)가 진실을 밝히기 위해 주변 사건들을 해결해가며 그를 둘러싼 비밀을 밝히는 모습이 그려졌다.

MBC '전·참·시' 박성광과 매니저 일상 '훈훈'

시청률 11% ... 자체 최고

주정뱅이나 지질이 코믹 연기로만 익숙한 개그맨 박성광이 '병아리 매니저'를 만나 제2의 전성기를 맞았다.

7일 시청률 조사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전날 밤 11시 5분 방송한 MBC TV 예능 '전지적 참견 시점'〈사진〉 시청률은 7.1%-9.8%를 기록했다. 수도권 기준으로는 2부에서 11.0%를 기록하며 자체 최고 성적을 냈다.

전날 방송에서는 박성광의 '병아리 매니저'가 성장한 모습이 눈길을 끌었다. 그저 '초보'였던 그는 박성광의 프로그램 섭외 전화를 능숙하게 처리하고, 박성광의 대본을 함께 교정해주는가 하면 큰 무대를 앞두고 긴장한 박성광을 격려했다.

박성광은 이번 프로그램에서 '병아리 매니저'가 일에 서툰어도 끊임없이 격려하고 배려하는 인간적인 모습으로 호평을 받는다. 어린 매니저와 함께하는 소소한 일상을 지켜보는 것 자체가 훈훈하다는 시청자도 많다.

이연복 셰프를 내세워 중화요리로 중국 본토를 공략하려 나선 tvN 예능 '현지에서 먹힐까'는 전날 5.4%(유료가구) 시청률을 기록하며 자



제 최고 시청률을 경신했다.

전날 방송에서는 중국 대학가에서 현지 반점을 열어 짜장면과 짜장밥을 판매한 이연복 셰프팀이 짜장면 100그릇을 모두 팔고, 전날 장사의 1.5배 매출을 올리는 모습이 그려졌다.

한편, KBS 2TV '불후의 명곡'은 7.6%-10.6%, SBS TV '빅픽처 패밀리'는 4.2%-4.9%, MBC TV '뽀빠이'는 2.1%-3.4% 시청률을 기록했다. JTBC '아는 형님'은 5.510%(유료가구)였다.

배우 그룹 '더 맨 블랙' 10일 첫 무대

드라마·앨범 발매 등 다방면

멀티테이너 배우 그룹 '더 맨 블랙'(THE MAN BLK) 〈사진〉이 오는 10일 오후 2시 서울 한남동 블루스퀘어 아이마켓홀에서 자신들의 특별공연(쇼케이스)을 갖고 첫발을 내딛는다.

강태우, 고우진, 신정원, 엄세웅, 윤준원, 이형석, 정진환, 천승호, 최성용, 최찬이 등 10명으로 구성된 '더 맨 블랙'은 여러 장르의 공연을 선보이며 무대를 꾸밀 예정이다.

이들은 배우 서강준, 공명 등을 발굴한 나병준 전 판타지오 대표가 차세대 한류를 겨냥해 양성한 신인 그룹이다. 이들은 따로 또 같이 드라마, 화보, 앨범 발매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TV프로그램 8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⑥	00 KBS 뉴스 광장	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⑦	50 인간극장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비밀과 거짓말(재)	45 KBC 모닝 730
⑧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살맛나는 세상	45 닥터 365 50 나도 엄마야
⑨	30 KBS 뉴스	00 차달래 부인의 사랑 40 그녀들의 여유만만	30 930 MBC 뉴스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아침
⑩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50 배드파파 (재)	10 SBS 뉴스 30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⑪	00 다큐 공감 (재) 50 UHD 한식의 마음 (재)	00 러블리 호러블리(재)		00 꾸러기 탐구생활 30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⑫	00 KBS 뉴스 12		00 12 MBC 뉴스 25 배드파파 (재)	00 SBS 12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지식 통조림 55 특선다큐 국악, 유럽에 스며들다 (재)
⑬	00 네트워크기획 문화산책 50 연중기획 -빛고을 행복아카데미 (재)	10 트래킹노트 세상을 걷다 스페셜	35 출발! 비디오 여행 다이제스트 55 2시 뉴스 외전	55 닥터 365
⑭	50 전라도 매력청 (재)	00 KBS 뉴스타임 10 생생정보 스페셜		00 뉴스브리핑
⑮	40 공감다큐, 사람(재)	00 자동공부책상 위키 2 30 TV 유치원	25 사이닝스타 55 뽀뽀뽀 모두야 놀자	
⑯	00 사사건건	00 그녀들의 여유만만(재)	25 꾸러기 식사교실(재) 55 5 MBC 뉴스	00 토크콘서트 화통
⑰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파파독 2 30 2018 영화의 바다로	15 MBC 플러스특선 단판 오피스	00 SBS 오뉴스 45 KBC저녁 뉴스
⑱	00 6시 내고향	00 KBS 경제타임 30 2TV 생생정보	15 생방송 빛날	00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재)
㉑	00 KBS 뉴스 7 35 우리말 겨우기	50 끝까지 사랑	15 비밀과 거짓말 55 MBC 뉴스데스크	00 날씨와 생활 10 생방송 TV블로그 쏘지락
㉒	25 내일도 맑음	30 글로벌24 55 제보자들	55 차종우돌 전국 유망기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생활의 달인
㉓	00 KBS 뉴스 9			
㉔	00 가요무대	00 최고의 이혼	00 배드파파	00 여우각시별
㉕	00 KBS 뉴스라인 30 오늘밤 김제동	10 안녕하세요	10 지역MBC 공동기획 지역독립선언	10 동상이몽2 너는 내운명 1~2부
㉖	00 이웃집 찰스(재) 50 국악한마당	35 비바 K리그	50 살맛나는 세상 스페셜	30 나이트 라인

EBS1

05:00 왕초보 영어	〈두부조림과 버섯 들깨볶음〉	17:15 마사와 공
05:30 세계견문록 아틀라스	11:20 세계테마기행(재)	17:30 띠띠뽀 띠띠뽀
06:00 한국기행(재)	12:00 EBS 정오뉴스	18:00 생방송 토크! 보니하니1~5
06:20 세계테마기행	12:10 극한직업 스페셜	19:00 몬카트
07:00 강철소방대 파이어로보	13:00 다큐 오늘	19:30 EBS 뉴스
07:30 띠띠뽀 띠띠뽀	13:10 고양이를 부탁해	19:50 다문화 고부 열전 스페셜
08:00 당동영 유치원1~2	13:40 배워서 남줄림(재)	20:40 세계테마기행
08:30 고고다이나 공룡탐험대	14:30 몬카트(재)	〈알수록 신비한 부탄 1부 히말라야의 선물 파로〉
08:45 방귀대장 뽀뽀이	15:00 마사와 공 스페셜	21:30 한국기행
09:00 뽀뽀뽀 뽀로로	15:15 파프리카	〈나의 차츰우물 집짓기 1부 산골 달팽이들의 천국〉
09:15 뽀로로와 노래해요	15:25 그림 그려줘 루이	21:50 EBS 다큐프라임
09:30 우리는 비트몬스터	15:45 강철소방대 파이어로보	22:45 우리 가족 거리 좁히기-부모성적표
09:40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16:15 똑딱맨	23:55 배워서 남줄림
10:30 한국기행(재)	16:30 방귀대장 뽀뽀이(재)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6:45 당동영 유치원1~2(재)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0월 8일 (음 8월 29일 癸酉)

子	36년생 여러 가지 구별이 확연해지리라. 48년생 지금 확신하기에는 이른 단계에 놓여 있다. 60년생 불가피한 상황에 봉착하여 활동에 제약을 받을 수도 있다. 72년생 판세의 전반에 영향을 미칠만한 특별함이 보인다. 84년생 오랜 기간을 필요로 한다. 행운의 숫자 : 65, 56	午	42년생 절대로 포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54년생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이익이 따를 수도 있는 판세이다. 66년생 구르는 돌에는 이끼가 끼지 않는다. 78년생 주체성과 독창성이 빛을 보게 될 것이다. 90년생 정성을 다 한다면 실현될 가능성이 높다. 행운의 숫자 : 19, 67
丑	37년생 의외의 결과가 도출된다. 49년생 감금한 신변 정리가 절실한 때이다. 61년생 공을 들여야 효과를 볼 수 있느니라. 73년생 대단한 일이 암암리에 진행 되고 있다. 85년생 시끄럽게 떠돌어도 별 것이 아니니 결코 놀랄 것까지는 없다. 행운의 숫자 : 68, 57	未	43년생 이익은 생기지만 소량에 불과하다. 55년생 아무 일도 없이 넘어갈 것이니 노파심은 버려도 된다. 67년생 대범하게 행동했을 때 수확도 클 것이다. 79년생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 한다. 91년생 집착하면 아니 될 것이니 가지지기를 잘 해야 하느니라. 행운의 숫자 : 75, 31
寅	38년생 화쟁거리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다. 50년생 이익이 따르느니라. 62년생 아주 희박했던 가능성이 차차 농후해지는 위상에 놓인다. 74년생 의외로 더디게 진행되는 형상이 비친다. 86년생 미리 알고 있다면 사전에 제어할 수 있겠다. 행운의 숫자 : 52, 27	申	44년생 모두를 대상으로 실행하라. 56년생 얼마나 깊이 다루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다. 68년생 새로운 시도가 행운을 가져다 줄 것이니 기대해도 좋다. 80년생 합의하에 행하는 것이 후유증을 없애리라. 92년생 시기가 아니라 의지의 유무가 관건이다. 행운의 숫자 : 22, 52
卯	39년생 몰두하다가 다른 것을 놓칠 수 있다. 51년생 갖은 가치를 하락 시킬 것이다. 63년생 호흡 있는 약은 입에 쓰고 도움 되는 말은 귀에 거슬리는 법이다. 75년생 되로 주고 말로 받을 수 있다. 87년생 상호 보완해야만 하는 것이 산적해 있다. 행운의 숫자 : 25, 59	酉	45년생 순탄하게 진행 된다. 57년생 불가피한 상황이니 감내해야만 하느니라. 69년생 도랑치고 가재 잡는 격이다. 81년생 가까스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되는 성극이다. 93년생 용기가 필요한 시점에 와 있으니 망설이지 말고 실행하라. 행운의 숫자 : 57, 83
辰	40년생 역할이 가장 되어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52년생 더 할 나위 없이 좋으리라. 64년생 순리대로라면 행운의 여신이 문을 노크하리라. 76년생 무너진 길을 고쳐 닦는 입장이 된다. 88년생 처음으로 대하는 이나 기회와의 인연이 기대 된다. 행운의 숫자 : 06, 23	戌	34년생 소기의 성과를 거둔다. 46년생 차체에 보완하지 않으면 기회가 주어지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58년생 상대는 기본 포석을 깔고 접근하고 있느니라. 70년생 원인을 분명히 따져봐야만 바로 잡을 수 있다. 82년생 중량감 있게 실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행운의 숫자 : 12, 94
巳	41년생 본의 아닌 언행을 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될 것이다. 53년생 정해진 절차에 따라라. 65년생 특수한 관계로 전환될 수도 있어서 변화무쌍하다. 77년생 실수만 하지 않는다면 원하는 목표에 도달한다. 89년생 드디어 수습 대국으로 접어들겠다. 행운의 숫자 : 27, 11	亥	35년생 구르는 돌에는 이끼가 끼지 않느니라. 47년생 자신이 마음먹었던 대로 진행해도 지장이 없었다. 59년생 한결같은 마음으로 임하라. 71년생 급하지 않다면 급적 뒤로 미루는 것이 이익이다. 83년생 숨어있는 의미까지 파악하는 것이 지혜롭다. 행운의 숫자 : 25, 38